

토론

「서울 한양도성의 발굴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유재춘
강원대학교

1. 논문의 의의

본 발표문에서는 1999년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립예정부지(중구 정동)의 도성터가 발굴된 이후 한양도성과 관련된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소개하고 그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도성 관련 고고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세 발굴내용 소개가 일부 지점 조사내용에 그치고, 그간 드러난 도성 축조방식에 대한 편년 문제도 조선시대 기록과 발굴 결과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좀 더 세밀한 고증을 수반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학술적 성과의 미흡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향후 도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조사에 서 어떠한 필요사항이 있는지를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러한 그간의 한양도성 발굴조사에 대한 성과 정리는 향후 다른 관련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술자료가 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2. 발표문에 대한 질의

- 1) 한양도성 유구의 시기 편년을 보통 태조, 세종, 숙종, 순조 이렇게 하고 있고, 발표자께서

도 본 발표문에서 대체로 그 분류편년에 따라 발표문을 작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편년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식선상의 분류이고 적어도 학술적 측면에서의 고고 자료에 대한 편년은 좀 더 세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편년방식은 대개 석축의 외형만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양도성은 1396년(태조 5) 태조대 1차 공사는 총연장 59,500척이었고, 높고 험한 곳은 석성으로 축조하되 높이 15척이었고(석성 총연장 19,200척), 낮고 평탄한 곳은 토성으로 축조하되 성벽 기저부 폭이 24척, 상단은 18척, 높이 25척(토성 총연장 40,300척)이었습니다. 태조대 1차 축성은 태조 5년(1396) 미완성된 채로 완료되었지만 그해 7월 폭우로 水口, 웅성, 성벽이 유실되거나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곧이어 2차 공사를 시행(1396년 9월 종료)하여 홍인지문 부근 등 봄철 공사에서 완성되지 못하였던 곳의 완축과 여름철 장마로 무너진 곳의 개축, 그리고 낮은 석성의 보수, 성문의 月團, 樓閣을 지었고, 특히 이 때에 장마비로 무너진 토성을 석성으로 대체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태조대 2차 공사후에도 군인, 승려 등을 동원하여 부분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태조 7년(1398)까지 완축된 도성의 둘레는 9,767步였습니다.(이는 척으로 계산하면 58,602척이므로 1차 공사 때 시공한 성터보다 감소된 것으로 구간별로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후 세종 4년(1422) 대대적인 개축공사를 시행하여 성벽은 험지에는 16척, 次地에는 20척, 평지에는 23척의 높이로 수축하였고, 이때에 당초에 개축을 예정하였던 토성의 무너진 곳 24,535척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곳도 모두 석성으로 개축하였습니다. 이후 세종대에 여러 차례 보수 공사가 있었고, 특히 문종 1년(1451) 좌승지 정이한이 감독하여 보수할 때에는 큰 돌을 사용하여 개축하여 튼튼함이 예전 성보다 더 낫다고 한 바 있었으며, 조선후기에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숙종대의 대대적인 수축을 비롯하여 영조대의 붕괴된 곳에 대한 개축 및 순조대의 수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도성 축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분석은 단순한 시기 편년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발굴조사 내용 소개에서 대체로 태조대 축성을 대개 석축만을 제시하였는데, 이미 실록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태조대 1차 축성의 2/3 정도는 토성이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된 지점에서 이 당시 토성 구축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구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중앙광장 발굴조사 소개 부분에서 세종대 석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축양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토성을 어떤 방식으로 석성으로 개축한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발표자께서 소개하신 여러 발굴조사 내용 가운데에는 해당 지점이 본래부터 석성으로 축조한 곳인지, 토성으로 축조하였다가 석성으로 개축한 곳인지를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조사에서 나타난 유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태조대에 1차 축성된 도성 구간중 석성구간과 토성구간에 대한 대략적인 기능이 있어야 향후 축조방식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없을 듯 합니다. 혹 태조대 1차 축성 당시의 도성의 토성과 석성 구간의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인지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3) 남산봉수대지 구간 발굴에서 城廊 유구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양도성에 성랑을 설치한 기록이 확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도성에 성랑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哨軍의 주둔을 위한 건축물이라면 이는 성랑이 아니라 軍鋪라고 해야 올바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초군을 위한 초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鋪幕” 혹은 “軍鋪”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랑은 본래 성벽 위에 설치하는 방어시설물입니다. 인조실록을 보면 황해도 황주성에 성랑 2,068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후금의 침략을 받은 직후 황급히 황주성 성벽이 낮은 것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성벽을 따라서 성위에 설치하는 방어시설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백범광장 발굴조사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태조대 성곽의 경우 풍화암반을 ‘ㄴ자’ 형으로 굴토하여 판축기법으로 내탁부를 성토 후 면석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조대 1차 축성과 그 이후 개축공사시의 축조방식을 이해하는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조사구간에 대해 “동서간의 레벨 차이는 7.6m이다. 태조대 쌓은 구간과 세종대 고쳐쌓은 구간이 확인된다.”라고 하였고, 이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태조대에 처음부터 석축성으로 쌓은 곳과 세종대에 석성으로 개축한 곳이 확인된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 질의 내용은 위의 2)변항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실록 기록을 참고하면 沙峴(무악재)~南山 구간은 당초 토축성으로 구축된 것으로 여

겨집니다. 세종대 도성 개축공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平陽府院君 金承暉는 “모두 돌로 쌓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沙峴에서 南山에 이르는 사이 중국 사신들이 올 때에 보이는 곳만이라도 석축으로 고쳐 쌓아야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사헌(즉 무악재)에서 남산에 이르는 구간이 대체로 토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 아동광장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반방전이 출토되었는데, 그 사용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 발표자께서는 이 유물이 어느 시기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성에 반방전을 사용한 것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선전기에는 일찍이 세종대에 벽동의 목책성을 巒城으로 개축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축성에 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아동광장 구간에서 출토된 반방전의 경우는 시기나 사용 목적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6) 그간 20여회의 한양도성 관련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도성 축조와 관련된 많은 고고자료가 축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발굴 유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치밀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과 유구 해석이 합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고증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향후 고고학적 학술조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발표자께서는 발표문을 작성하시면서 발표문에 제시하신 것 외에 향후 학술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부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